

‘AZ백신 혈전 우려’... “특수·보건교사 접종 잠정 보류”

오늘 예정된 6.4만명 접종 연기 60세 미만도 한시적 보류하기로 고3학생 화이자 잔여 백신 활용 여름방학때 예정대로 진행 전망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8일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보육교사 등의 예방접종 일정이 전면 보류됐다. 다만 여름방학을 이용해 접종하기로 계획했던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접종은 화이자 잔여 백신을 활용하기로 해 일정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3주간 중·고등학생 확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육부는 학교 방역 강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예정됐던 특수·보건교사 AZ 백신 시작 백지화

8일 예정이던 보육교사 등의 AZ 예방접종 일정은 전면 연기됐다. AZ 접종 후 혈전 생성 논란이 이어지면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7일 오후 “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며 “7일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최은화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코로나19 학교 방역 관련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교육부

유럽의약품청(EMA) 총회에서 AZ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 간 연관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등교·등원 상황에 따라 학교와 돌봄공간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학생과 물리적 접촉이 많은 교사를 우선 접종대상으로 선정했다.

8일 접종 예정이던 교사는 전국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 보건교사 4만9000명,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교직원·간호인력 1만5000명 등 총 6만

4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나머지 교사와 학생들의 접종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질병청과 협의하러던 계획도 잠시 미뤄진다. 앞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에 대해 6월로 예정됐던 예방접종을 5월로 가능한 한 앞당겨 시작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여름방학때 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접종은 화이자 백신의 잔여 물량을 활용해 접종기로 예정돼 있어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중·고생 확진, 확산세 ‘우려’ 4차 대유행의 갈림길에서 학교 현장

도 불안한 모습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새 학기 코로나19 감염현황 분석 및 방역 협의’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0주간 지속해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최근 증가 추세로 이어져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방역 협의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최은화 서울대의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됐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긴급회의 개최가 결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유·초·중·고교 2만250개교(98.7%)가 등교수업을 운영 중이다. 전국 평균 등교율은 73%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3주간 중·고등학생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3주간 13~18세 학령기 연령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보여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차 유행의 파고 속에서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3월 한 달은 ‘안정적’ 진단... 최근 3주 증가세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 이후 3월 한 달

간은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봤다. 올해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 이후 3월 한 달간 1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전체의 0.3%에 해당하는 62개로 확인됐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인원이 대폭 확대돼 개학 이후 확진자 발생률이 급증할 것을 많이 우려했는데 3월 학생 확진자 발생비율은 전체 인구 감염 비율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를 보인다”며 “어린이집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만 3~18세 학령기 나이의 확진자 비율 또한 개학 이후 한 달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8일 본격적인 교사 접종에 앞서 학교·돌봄 관련 접종 대상자 접종 동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교사나 특수교육·보육, 어린이집 간호인력의 접종동의율은 지난 4일 기준 68.3% 수준이었다.

유 부총리는 “4차 재유행의 갈림길에서 교육부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질병청,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 사항들을 보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생 10명 중 7명 “알바 구해요”

개강시즌 맞아 알바 공고 50% 증가 알바자리 많은 대학가는 ‘한국체대’ 지역 1위는 경기, 서울·부산 뒤이어

전국에서 대학가 알바 공고 상위 지역은 ‘경기’ 및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알바자리가 가장 많은 대학가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한국체육대학교가 꼽혔다.

특히 새학기를 맞으며 대학생 10명 중 7명이 대학가 알바를 구직 중이며,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소 열리면서 전년 대비 대학가 알바자리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알바천국에 따르면 개강 시즌(2월 16~3월 15일)을 기준으로 실제 알

바천국에 등록된 공고 수 역시 전년 대비 50.5% 증가했으며, 3월(3월 1~15일)의 경우 108.8% 늘어나 약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대구 ▲경남 등이 순서대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대학가 알바 공고 수 증가율이 돋보이는 지역은 ▲세종(145.0%) ▲대구(116.0%) ▲경북(106.2%) 등이다.

서울 지역 내 대학가 알바 공고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한국체육대학교(송파구)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홍익대학교(마포구) ▲건국대학교(광진구) ▲서울교육대학교(서초구) ▲서울대학교(관악구) ▲한국성서대학교(노원구)

▲서울기독대학교(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서초구) ▲숙명여자대학교(용산구) ▲동국대학교(중구) 순이다.

경기 지역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많은 대학가 알바 공고를 자랑했으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용인시 수지구) ▲부천대학교(부천시) ▲평택대학교(평택시)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성남시 수정구) ▲오산대학교(오산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안산시 상록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시흥시) ▲한신대학교(오산시) ▲국제대학교(평택시)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왼쪽부터)송진우 세종대 창업지원단장과 심사를 맡은 김성신, 정연배, 박용근 대표가 ‘2021 피칭 & 집중 멘토링 데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대

세종대, ‘피칭&집중 멘토링 데이’ 운영

창업지원단, 총 16팀 참가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달 ‘2021 피칭&집중 멘토링 데이’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49명이 16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세종 피칭&멘토링 데이는 지난달

24일에, 최종 심사는 31일 진행됐다. 행사에서 네 명의 전문 멘토 위원이 15분씩 팀별 순환식 멘토링을 진행했다. 사전에 제출된 학생들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각 팀별로 7분의 발표와 멘토의 피드백이 8분간 이뤄졌다.

최종 심사는 웹엑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참가팀이 5분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 후 5분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아트 전통주 정기 구독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한 ‘주간 감성 팀’이 수상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총동문회장 임종성 화백 장학기금 마련 초대전

삼육대 총동문회장인 초강(初江) 임종성 화백이 장학사업 및 동문회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연다.

7일 삼육대에 따르면 임종성 화백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삼육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自然, 그 자연 속으로’를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삼육대 개교 1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이자, 삼육대 박물관이 준비한 올해 첫 초대전이다.

임 화백은 이번 전시회에 200여 점의 작품을 내놓는다. 아기자자한 소품부터 최대 6m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까지 한 자리에 파노라마처럼 펼쳐낸다.

/이현진 기자

고려대, ‘기후변화 해결책 모색’ 웨비나

“지역사회에 해법”... 내일 개최

고려대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위기로 떠오른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고려대학교는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OJERI)이 오는 9일 오후 3시 ‘기후변화의 해결책 모색’을 주제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전 세계 100여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솔브 클라이머트(Solve Climate) 2030’이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 등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

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지역 사회에서의 해법을 전하기 위해 열린다.

연사로는 이우균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원장,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유스 코리아 강동렬 총괄, (재)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이, 사회자로는 전진형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가 나선다.

연사들은 ▲자연기반의 기후해결을 위한 과학의 역할(이우균 교수) ▲MZ세대의 기후위기 소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김소희 사무총장)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미래세대의 역할(강동렬 총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국민대, ‘KMU 인공지능센터’ 설립

인공지능 분야 연구·교육 선도

국민대학교가 미래 핵심기술로 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총괄하는 KMU 인공지능센터를 총장 직속 기구로 설립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대는 자동차, 디자인 분야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미래 대학 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선정했다.

국민대는 미래 산업의 핵심경쟁력으

로 부상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해나가기 위해 2022년 인공지능학부, 미래모빌리티학과, AI디자인학과, AI빅데이터융합경영학과 등 6개의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 및 증설할 예정이며 KMU 인공지능 센터는 각각 첨단분야 학과의 인공지능 교육을 융합하고 코어 기술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